

28장 제사장의 의복 (2)

제사장의 의복에서 중요한 것은 에봇과 판결의 흉패이다. 여기에 겹옷과 속옷, 그리고 세마포 관와 금패에 관한 규례를 더하여 주셨다.

1. 청색 겹옷 (28:31-35)

제사장은 청색 에봇을 입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 이른 것을 표상한다. 청색 겹옷의 윗부분은 머리가 들 어가면서 찢어지지 않게 촘촘하게 깃을 짰다.

옷 가장자리는 석류로 장식하였고, 거기에 방울도 달았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이 울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방울 소리가 울릴 정도로 급하게 일해도 안 되고, 게으름을 피워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도 안 되었다.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봉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세마포 관과 금패: 여호와께 성결 (28:36-38)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단 모자를 써야 하였다. 여기에서 성결은 대제사장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의 봉사를 통하여 백성이 정결케 되기를 머리에 있는 패로 보여 주셨다.



제사장이 봉사할 때에 머리의 두건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제 사장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38절은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 게 되리라” 하고 말한다.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패는 여호와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한다는 말이다. 제사장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 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기다린다. 제사장이 그의 봉사를 통하여 죄를 정결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속옷, 띠, 관, 속바지 (28:39-41)

청색 겹옷 아래에는 가는 베실로 짠 흰색 속옷을 입었다.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속옷만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속옷과 띠와 관에 관한 규례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적용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속옷을 입고 임직되었다(29:8). 대제사장이 에봇, 흉패, 청색 겹옷, 금패를 단 복장을 하고 섬겼고, 다른 제사장들은 흰색 속옷과 띠, 관을 착용한 복장으로 봉사하였다.



4. 고의/속바지 (28:41-43)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어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려서 자기의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였다.

하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였다(43절). 제사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봉사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제정해 주신 영원한 규례였다.

묵상과 실천:

제사장의 의복과 머리의 패

제사장의 의복은 아름답고 영화로웠으며 거룩하였다(28:40-41). 제사장이 흰 옷 위에 청색 겹옷을 입고 그 위에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에 사용한 재료로 만든 예봇을 입었고, 그 위에 열두 보석의 흉패를 걸쳤고, 어깨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있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있었다. 속옷도 잘 갖추어 입어서 단정하였고, 그가 걸을 때에는 석류 방울에서 나는 소리가 났다.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열두 보석으로 상징된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기에 제사장이 이렇게 의복을 갖추고 봉사하는 것이 지킬 영원한 규례였다(43절).

겹옷과 속옷에 관한 규례 중간에 세마포 관과 금패에 관한 규례를 주셨다.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어긋나는 것은 금패를 강조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다.

백성의 죄책을 대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담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무흠한 그분의 몸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한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여호와 앞에서는 한 몸이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사실이 서로를 용납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28장 (2) 익힘 문제

1. 예봇 받침 겹옷에 관한 규례입니다.

- 1) 어떤 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31절)
- 2) 그 옷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무엇과 무엇을 한 개씩 번갈아 달도록 하셨습니까? (33절)
- 3)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제사장 옷에 달린 무엇의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35절)
- 2) 1) 제사장이 쓴 관에는 무엇으로 만든 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36절)
- 2) 제사장은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으나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서 받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습니까? (38절)
- 3) 1)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만든 속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 2) 속옷과 함께 만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40절)
- 3)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위임할 때에 무엇을 붓도록 하셨습니까? (41절)
- 4) 1) 속바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리게 하였습니까? (42절)
- 2)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3절)